

5월 경남지역 노동자들과 전개한 조선업 중대재해 집중 투쟁

김병훈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노동안전보건국장

올해 5월까지 집계된 경남지역 중대재해 현황

지난 5월 31일까지 올해들어 경남지역에서 중대재해로 총 21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1월 6명, 2월 2명, 3월 4명, 4월 5명¹⁾, 5월 4명이다. 특히, 조선업에서 중대재해가 더욱 심각하게 발생했다. 2024년 5월까지 전국의 조선업에서 13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는데, 그 중 9명이 경남지역 노동자이다. 이는 예년 같은 기간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전국 조선소 중대재해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라인더를 사용하다 폭발해서 사망, 계단에서 이동하다가 추락 사망, 잠수 작업 중 사망, 크레인 전도 과정에서 사망, 선박 수리 중 폭발해 사망, 블록에 깔려 사망 등 조선소의 발생하는 중대재해 유형이 총망라됐다.

5월을 가득 채운 중대재해 집중 대응 투쟁

특히 중대재해는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관할 지역 조선소에서 집중된 특성을 보였다. 1월 한화 오션 중대재해 대응 투쟁을 시작으로, 4번의 고용노동부 항의 투쟁과 2번의 결의대회, 그리고 기자회견을 포함한 입장문 발표가 17건이나 있었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 현장 조사가 진행됐다. 사업장 접근이 가능한 곳은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고, 불가능한 곳은 다른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특히,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5월 1일 긴급 입장문 발표를 시작으로 사무처 회의를 통해 5월을 ‘중대재해 예방 집중 투쟁의 달’로 정하고 중대재해 대응 투쟁에 나섰다. 다음

1) 2024년 4월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 포함

은 5월 9일부터 진행한 대응 투쟁 일정이다.

5월 9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규탄 입장문 발표

5월 10일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긴급 사무처 대책 회의

5월 13일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5월 14일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투쟁 선포 기자회견

5월 16일 긴급 조선소 중대재해 토론회

5월 21일 민주노총 중앙위 특별 결의문 채택

5월 24일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규탄 순회 투쟁

5월 30일 조선업 중대재해 대책 총연맹/금속 노조/4개지역본부 간담회

숨가쁜 일정속에 실시한 현장조사, 이를 통해 밝힌 위험 관리와 제도 미비의 실태

대응 투쟁 중 4월 27일에 발생한 초석 HD 폭발사고 조사를 진행했다. 초석 HD 중대 재해는 우리나라 폭발 화재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이 사고로 인해 3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엔진룸 내부 시너 작업 중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 과정에서 용접 작업과 시너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작업 시 내부 환기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폭발 분위기가 조성됐고, 혼재 작업에 의해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화재 및 폭발 위험 관리의 기본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것이 해당 작업에 대한 위험 관리의 실태인 것이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선박 수리 작업에 대한 제도의 문제점도 확인하였다. 그동안 해양수산부를 포함한 고용노동부 어느 누구도 선박 수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을 확인했다. 결국 위험 관리 책임 주체의 공백이라는 제도의 허점을 발견하지 못한 정부와 위험 관리를 소홀히 한 사업주에 의해 세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것이다. 이를 조사하는데만 수일이 걸렸다. 사업장 접근도 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드러나지 않았던 제도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제기하는 기자회견 및 지역 토론회를 개최해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고용노동부의 즉각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결국 고용노동부도 제도의 허점을 인지하고 실태 조사에 착수했으며, 개선안을 마련해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게 됐다. 특히, 선박 수리 위험 관리 제도의 문제에 대해서는 공익감사청구 등을 통해 근본적 대책을 마련코자 준비 중에 있다. 또한, 조선업의 폭발 화재의 문제는 고질적인 병폐이기 때문에 환기 대책 등을 요구 및 논의하고 있다.

가맹 산별과 함께한 순회 투쟁

이와 함께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중대재해가 발생 조선업 사업장 규탄 순회 투쟁을 조직했다. 노조가 없는 사업장 2곳에서 추모 및 규탄 집회를 진행했다. 창원-거제-통영-고성으로 이어진 순회 투쟁은 오전 10시부터 저녁까지 전개됐다. 이 순회 투쟁에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소속 산별 동지들의 적극적인 연대가 있었다. 긴급히 순회 투쟁이 진행되며 조직적 절차를 거치지 못한 한계가 있었는데, 오히려 각 산별노조는 이를 지적하기 보다는 많이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 미안했다. 어떤 산별은 창원에서 회의를 마치고 마지막 집회 장소인 고성에 달려왔고, 또 어떤 산별은 오후에 예정된 일정이 빠듯했지만 시간을 내 오전 투쟁에 참석하는 성의를 보였다. 모든 노동자가 중대재해 사망 사업장 앞에서 분노를 표했고, 더 이상 노동자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투쟁하자고 결의했다.

조직적으로, 함께 했던 대응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중대재해 집중 대응 투쟁을 위해 세 가지 목표를 세우고 긴급 투쟁을 결의하고 집행했다. 특히, 사무처는 상황의 긴급성을 확인하고 투쟁 계획을 수립해 산별과 소통·집행했으며, 투쟁을 계획하고 조직하고자 임원 및 조직1국 등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해 공동으로 준비했다. 산별 연맹 역시 사안의 시급성에 동의하고 현장을 적극적으로 조직하고 연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앞선 4월 건강권 투쟁의 달, ‘노동자 생명 안전 집중 투쟁’을 벌였다. 4월 ‘시민 생명 안전 주간 투쟁’, 이를 바로 이어 ‘노동자 생명 안전 주간 선포’ 등을 통해 집중 투쟁을 한 바 있다. 4월 투쟁이 매년 해 오던 투쟁이었다면, 이번 5월 중대재해 집중 투쟁은 당면한 중대재해 발생 현황을 두고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가 조직적인 대응 투쟁을 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명확하다.

5월 집중 투쟁은 중대재해로 인해 희생된 노동자에 대한 추모와 사업주에 대한 분노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경남지역 노조 간부 및 활동가들이 함께 분노하고, 노안 간부만의 투쟁이 아닌 모두 함께 싸우는 조직적 투쟁을 전개했다는 것에 의미가 크다. 함께 투쟁한 동지들에게 감사함과 연대의 마음을 글을 통해 전한다. 